

2. 민속악(농악)

농악에 대한 본디 명칭은 매구·굿·매굿·풍물·두레·걸궁·걸립 등이다. 농악은 ‘농민의 음악’, ‘농촌의 음악’이라는 뜻을 한자로 정리하면서 나온 말이다.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쓴 것인데, 문헌상 처음 보이는 것은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투락제』라는 책에서이다. 농악은 여러 명칭에서 보듯이 마을 공동체의 제사나 집단노동의 여러 현장에서 연주되었으며, 민중의 1년 열두 달 생활 속에서 놀아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되고 전승되어온 민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을의 공동제사로 당제를 모실 때, 모심고 논매기할 때, 그리고 백중날 농사장원을 뽑을 때에 농악을 치며 놀았다. 또한 새로 집을 지었을 때나 새로 이사했을 때에도 집들이로 농악을 치고 술을 대접했으며 줄다리거나 씨름판에서, 또 달집태우기를 할 때에도 농악을 쳤다. 그리고 공공기금 마련을 위한 걸립이나 학교 운동회, 환갑잔치 같은 행사에도 농악대가 동원되었다.

한편, 농악의 연행목적이 이처럼 다양한 만큼 그 형식과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성격은 각각의 농악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성이다. 농악의 연행에는 민중의 공동체적 삶과 정서가 요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중의 공동노동과 공동제사, 집단놀이 등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농악에는 민중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의식과 공동체적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농악을 포함하여 우리의 민속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동안 소멸되고 왜곡되어왔던 형편에 비추어보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농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농악이 사물놀이화되고 무대화되어 감상용으로 변질되고, 대학에서 굿의 일부분이나 특정 가락만이 연주되어 농악을 협소화시키고 있는 것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농악을 정태적 관점에서 고정물로 보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문화는 그것을 누리는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농악도 민중이 처한 삶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목적을 달리하고 그 형식과 내용도 달라져왔다. 그러므로 농악을 고정적인 것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기능을 살피고,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전승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농악은 공동체적 염원을 담아내는 제사음악과, 노동현장에서 피로를 잊게 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주는 노동음악적 특성을 중심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악을 이해하는 태도도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농악을 보존하고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전승시키려는 노력이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고 익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며 건강한 민중적 미의식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족문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